일본산 PVC플레이트 반덤핑 규제

재경부, 4개월간 최고 40.2% 부과 … 2004년 시장규모 100억원 상회

반도체 제조설비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일본산 PVC플레이트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.

재정경제부는 12월22일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산 PVC플레이트에 대해 앞으로 4개월간 최고 40.20%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.

2004년 4월 국내 PVC플레이트 생산업기업 크라운이 일본산 PVC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해 무역위원회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.

반덤핑관세율은 타키론이 40.20%로 가장 높고 츠츠나카(筒中)플래스틱 38.60%, Mitsubishi(三菱)플래스틱 35.23% 등이며, 기타는 일괄적으로 37.36%가 부과된다.

반도체, 액정표시장치(LCD),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(PDP) 제조설비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PVC플레이트는 국내 시장규모가 2003년 76억50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30%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.

재경부는 2005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12/23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